

‘데뷔 전부터 인기폭발’ KIA 윤영철 “받은 만큼 더 잘해야”



KIA 신인 중 유일하게 미국 스프링캠프 참가
“내가 진짜 프로 선수가 됐구나” 라는게 느껴져”

“진짜 프로선수가 된 것 같아요.”
 ‘슈퍼루키’ 윤영철(19·KIA 타이거즈)이 스프링캠프와 함께 치열한 ‘봄’을 맞이한다.
 윤영철은 1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팀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로 향했다.
 출국을 앞두고 만난 윤영철은 “해외 전지 훈련이 처음이기도 하고, 선배님들도 같이 가니 ‘내가 진짜 프로 선수가 됐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며 웃었다.
 이어 “선배님들이 실제로 운동하는 건 처음 본다. 마무리 캠프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했다. 공 던지는 걸 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입단 첫 해부터 해외 스프링캠프 초대장을 받는 행운을 잡았다. 올해 KIA 신인 중 애리조나 캠프를 함께하는 건 윤영철이 유일하다.

그만큼 팀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2023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윤영철은 팀의 선발 후보로도 거론된다.
 윤영철도 선발 자리에 대한 욕심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윤영철은 “원하는 보직은 선발로 던지고 싶긴 하다”면서 “아직은 신인이고 어떤 자리든 많이 던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프링캠프 합류로 잠재력을 인정 받은 윤영철은 이제 1군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일단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꾸준히 하다가 좋은 기회가 올 거고, 내가 잘 잡아야 한다”고 등집하게 말했다.

전국구 인기 구단인 KIA의 일원으로 벌써부터 팬들의 뜨거운 사랑도 확인하고 있다. 팀의 연구자인 광주에선 벌써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다.
 이날 공항에서도 팬들의 사인 공세가 계속되기도 했다.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더 힘이 난다.
 “(인기가) 확실히 체감이 된다”며 웃은 윤영철은 “데뷔 전인 데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선물도 주신다. 너무 감사드리고, 받은 만큼 더 잘해서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슬비기자

성남시청 코치 공개채용 과정에 최민정 “선수들 원하는 감독 필요”

김길리 등과 함께 공동 입장문 발표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25)이 성남시청 코치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최민정은 1월31일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성남시청 코치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합을 뛰는 건 결국 선수들이다.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민정은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민정과 김다겸, 서범석, 이준서, 김건희, 김길리 등 성남시청 빙상부 선수들은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이라는 글에 서명했다.
 이들은 “현재 저희 빙상부는 감독과 코치가 모두 공석인 가운데 코치 공개 채용 과정임을 알고 있다”며 “저희는 이번 코치 선발 과정이 외부 영향력에 의한 선발이 아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청 빙상부는 전현직 대표팀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팀을 이끌기 위해서 지원자 중 코치 감독 경력에 가장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항상 많은 지원 감사드리며 성남시 소속 선수로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성남시청 빙상부 코칭스태프 공개모집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최민정 등이 현재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에 불만을 가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장문이 코치직에 지원했던 안현수(빅토르 안)나 김선태와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입장문은 안현수와 김선태가 성남시청 코치직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장문이 두 사람의 최종 후보 탈락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현수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를 택했던 인물이라는 점, 김선태 역시 조재범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을 방조한 뒤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 한국을 상대했던 이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비란 여인이 아직 있다.
 선수들이 직접 코치직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향후 성남시청 코칭스태프 구성에 빙상계 안팎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뉴시스



천적 물리친 안세영, 3월 전영오픈 우승 정조준

최근 국제 대회에서 천적으로 불리던 상대를 연파한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21)이 귀국했다.
 안세영은 1월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안세영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고 미소를 지었다.
 안세영은 지난 1월15일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저 준우승에 그쳤다.
 안세영은 1주일 뒤인 지난 1월22일 인도오픈 결승에서는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했다. 이어 29일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과정은 더 극적이였다. 세계 2위 안세영은 그간 상대 전적에서 열세였던 선수들을 차례로 꺾으면서 기량이 향상됐음을 입증했

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준결승에서 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를 눌렀다.
 이어진 인도오픈에서는 준결승에서 세계 5위 허빙자오(중국)를, 결승에서는 세계 1위 야마구치를 차례로 꺾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오픈에서는 준결승에서 세계 8위 라차녹 인타는(태국), 준결승에서 세계 6위 왕즈이(중국), 결승에서 세계 7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을 눌렀다.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안세영은 오는 3월 최고 권위의 전영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노린다. 안세영은 지난해 전영오픈 결승에 진출했지만 야마구치에게 패한 바 있다. 오는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열린다.

‘47.3% 삭감 찬바람’ 강백호 “연봉이 선수 ‘급’ 나누진 않아”

지난해 5억5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깎인 2억9000만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



“연봉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과’ 속 새 시즌을 준비하는 강백호(24·KT 위즈)가 여느 때보다 단단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백호는 1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KT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미국 애리조나로 향했다.
 지난 1월29일 캠프를 떠난 동료들보다 이틀 늦은 출국이다. 2023시즌 연봉 계약이 늦어지면서 선수단 본진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출국을 앞두고 만난 강백호는 “연봉이 다는 아니”라며 “연봉이 선수의 급을 나누진 않는다는 걸 올해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역대급 한파를 몸으로 체감했다.
 지난해 5년 차 최다 연봉 타이인 5억5000만원을 받았던 강백호는 이번 겨울 구단과 줄다리 끝에 2억9000만원에 사인했다. 47.3%(2억6000만원)가 깎인 금액이다.
 부상과 부진 속에 2022시즌을 치른 그는 연봉 반토막을 막지 못했다.
 개막 전부터 발가락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강백호는 복귀 후 햄스트링 부상 등에도 또 자리를 비웠다. 그라운드에서도 체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62경기 출장에 그쳤고, 성적도 타율 0.245, 6홈런 29타점으로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삭감에는 공감했지만, 삭감액을 두고는 구

단과 이견이 컸다. 진통을 거듭하다 본진 출국 전날인 28일 밤에야 사인을 했다. 그러나 비행기 예약 등의 문제로 이날에야 미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2차 1라운드 1순위 지명으로 KT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의 연봉이 삭감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백호는 연봉 계약에 대해 “연봉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며 “어떻게 됐든 팀에서 잘 조율이 돼 이렇게 캠프에도 참가하게 됐다. 구단에서도 배려해준 게 많기 때문에 연봉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선수의 급을 나누진 않는다는 걸 올해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회가 남는 시즌을 치르며 몸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강백호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기량이 다가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생각하게 됐다”며 “안 다치는 게 제일 큰 목표다. 시즌을 돌아봤을 때 그게 제일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강백호에게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도 큰 동기부여가 된다.
 지난 시즌 좋지 않은 성적에도 태극마크를 달게 된 만큼 책임감이 더 크다.
 강백호는 “(대표팀에)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더 증명해야 할 것 같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많은 팬분들이 수고하고 ‘괜찮다’고 해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적설’ 황의조 향한 ‘美 러브콜’…K리그 복귀설도

미네소타·애틀랜타 이어 시카고도 관심…과거 황인범 단기로 뛴 FC서울도



축구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31·올림픽 피아코스의 K리그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미국 프로축구 구단들의 러브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황의조를 원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이 추가됐다.
 이적시장 전문가인 이탈리아 출신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월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LS 소속 시카고 파이어가 황의조가 임대로 뛰는 올림피아코스과 원소속

황의조가 지롱댕 보르도(프랑스)에서 뛴 때부터 그를 주시했던 팀이다. 최근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깜짝 스타가 된 조규성(전북)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조규성이 잔류에 무게를 두면서 황의조 영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황의조의 몸값은 540만 달러(약 67억원)로 추정된다.
 황의조는 올림피아코스서 올 시즌 공식전 총 12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도움 1개를 기록 중이다.

올림피아코스에서 설 자리를 잃은 황의조가 미국 구단들과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이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한 시즌 동안 최대 3개 클럽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2개 클럽에서 서만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황의조는 이미 보르도와 올림피아코스에서 경기를 뛰어 유럽 내 리그에선 더는 출전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피하려면, 추후제(가을부터 이듬해 봄)로 운영하는 유럽과 리그 일정 겹치지 않는 춘추제(봄부터 가을까지)를 실시하는 리그로 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황의조가 최근 프로축구 FC서울과 국내 복귀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경기 출전과 관련이 있다.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길 원하는 황의조는 다른 리그에서 뛰더라도 최대한 출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서울은 과거에도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 단기로 뛴 적이 있다.
 황의조와 황인범이 에이전트가 같은 점도 서울 임대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MLS 구단들의 영입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연봉 등 개인 조건을 유지해줄 수 있는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